

금강산국제관광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

＊ 최신철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 부사장과 나눈 이야기 ＊

기자: 지난 6월 11일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경위에 대해 알고싶다.

최신철: 최근 원산-금강산지구에 마석령소기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서고 원산지, 울릉도, 독도, 석왕사지, 동해, 천지주, 문화휴양지로 특색있게 꾸러지고있다. 특히 천하절승 금강산과 명승지들에 대한 우리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국제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법 등이 적용된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2011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왔으며 그해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이 조치는 금강산관광을 국제적규모에서 더욱 활성화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의지가 반영된것으로서 천하절승 금강산을 마음껏 관광하고싶어하는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원산-금강산지구에 대한 유리한 투자환경과 특혜적인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었으며 금강산이 세계적인 관광지, 경제중심지로 변모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산

지구는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되었으며 오늘날 국제관광사업과 투자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기자: 금강산은 국제관광특구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지 않습니까?

최신철: 그렇다. 우리 민족의 자랑 금강산이야말로 리상적인 국제관광지대라고 할수 있다.

금강산은 기묘한 산과 유계수, 깨끗한 바다와 호수, 다양한 생물상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옴의 종합적정세를 이루고있는 천하절승지대로서 자연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리상적인 휴양관광지로 되고있다.

또한 온천과 치료용 강림자원이 풍부하고 산소함량이 23.4%인 맑고 신선한 공기와 산림, 해변, 기후치료에 적지인것으로 하여 휴식치료관광지로도 되며 아시아에서 제일 오랜 돌출상인 묘

공원 등 세가지로 나누어 조성하게 된다. 알파리메물놀이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해양체육구락부를 비롯하여 체육시설을 갖춘 대상들도 건설하게 된다.

다양한 문화, 유희오락시설을 갖춘 대상들을 꾸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온정리 온천장주변에 10여개의 개별천자들을 꾸리고 금강산호텔주변에 온천, 강림치료, 안마, 치료체육 등을 할수 있는 건강증진중심, 고성항구역에 해수욕장을 건설하며 유희장, 곱둥어물놀이장, 야외수영장을 새로 꾸리게 된다.

금강산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탐승시설들도 건설하게 된다. 여기에는 금강산내강리 만폭동구역을 고경군-비로봉사이의 구간에 등산길을 새로 내며 온정리 선하구역, 구룡연구역, 만물상

구역의 구간들에 관광산도를 놓는것 등이 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온정리구역일대를 금강산의 상업문화중심지로 꾸릴 전망이다. 상업시설로서는 금강산개발계획관, 국제무역전시장과, 국내상품시장, 카지노장, 조선민속품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음식점거리, 대륙별상점, 식당들이 늘어선 국제상업거리, 양지별상업거리, 해수욕장상업촌, 문화공원식당, 별장촌상업거리 등을 계획하고있으며 온정리형, 종합편의시설들도 일떠세우게 된다.

또한 온정리구역과 고성항구역에 숙박시설들도 건설하게 된다. 온정리 조로일대에 20~30개 호동의 단층숙박시설들과 소중의 고급려관이 늘어선 민속려관촌, 온정리 만나물일대에 2개 호동의 15~20호짜리 호텔과 5층짜리 가족호텔, 고성항구역 골도강주변에 골도강숙박시설확장을 비롯하여 5400평의 숙박시설을 갖춘 55~75개 호동의 대상들을 건설하게 된다.

국제관광보장을 위한 하루구조건설도 계획하고있다. 원산갈마비행장, 원산-금강산사이 철도, 원산-금강산사이 고속도로, 항만들을 개건현대화하며 특구내의 전력보장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 특구내에서 전자유선, 국제전화, 국제팩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들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도록 통신중심도 꾸리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방향에 따라 우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실제적인 법적조치들을 취해나가려고 한다.

특구에 다른 나라 법인, 개

인, 경제조직들은 물론 남측과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들도 투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대상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며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맡아하도록 하며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현재 특구내에서는 중국,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해외기업들이 식당, 상점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업봉사시설들을 운영하고있으며 국제관광특구의 성격에 맞게 무관세상점과 카지노영업을 진행하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전망은 매우 좋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금강산국제관광은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있으며 해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올해에도 배와 비행기에 의한 금강산국제관광이 많이 진행되고있다.

우리는 금강산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과 함께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금강산관광을 적극 활성화해나가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최신철: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특구개발의 기본원칙은 자연환경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다목적다기능, 복합형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며 하루구조건설을 앞세우고 교통, 통신을 현대화, 고속화하여 그 신속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다.

우선 금강산지구에 공원, 체육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원은 고성군 온정리 양지말 뒤산과 조로구역, 고성항구역에 비롯한 넓은 부지에 자연공원과 민속공원, 해안공원 등 세가지로 나누어 조성하게 된다. 알파리메물놀이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해양체육구락부를 비롯하여 체육시설을 갖춘 대상들도 건설하게 된다.

다양한 문화, 유희오락시설을 갖춘 대상들을 꾸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온정리 온천장주변에 10여개의 개별천자들을 꾸리고 금강산호텔주변에 온천, 강림치료, 안마, 치료체육 등을 할수 있는 건강증진중심, 고성항구역에 해수욕장을 건설하며 유희장, 곱둥어물놀이장, 야외수영장을 새로 꾸리게 된다.

금강산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탐승시설들도 건설하게 된다. 여기에는 금강산내강리 만폭동구역을 고경군-비로봉사이의 구간에 등산길을 새로 내며 온정리 선하구역, 구룡연구역, 만물상

구역의 구간들에 관광산도를 놓는것 등이 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온정리구역일대를 금강산의 상업문화중심지로 꾸릴 전망이다. 상업시설로서는 금강산개발계획관, 국제무역전시장과, 국내상품시장, 카지노장, 조선민속품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음식점거리, 대륙별상점, 식당들이 늘어선 국제상업거리, 양지별상업거리, 해수욕장상업촌, 문화공원식당, 별장촌상업거리 등을 계획하고있으며 온정리형, 종합편의시설들도 일떠세우게 된다.

또한 온정리구역과 고성항구역에 숙박시설들도 건설하게 된다. 온정리 조로일대에 20~30개 호동의 단층숙박시설들과 소중의 고급려관이 늘어선 민속려관촌, 온정리 만나물일대에 2개 호동의 15~20호짜리 호텔과 5층짜리 가족호텔, 고성항구역 골도강주변에 골도강숙박시설확장을 비롯하여 5400평의 숙박시설을 갖춘 55~75개 호동의 대상들을 건설하게 된다.

국제관광보장을 위한 하루구조건설도 계획하고있다. 원산갈마비행장, 원산-금강산사이 철도, 원산-금강산사이 고속도로, 항만들을 개건현대화하며 특구내의 전력보장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게 된다. 특구내에서 전자유선, 국제전화, 국제팩스,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들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도록 통신중심도 꾸리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방향에 따라 우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실제적인 법적조치들을 취해나가려고 한다.

특구에 다른 나라 법인, 개

비단우에 꽃, 금강산의 천연장수식물들을

조선의 명산, 세계적인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

다양하고 웅장하며 수려하고도 기이한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가진 금강산은 뛰어난 명승지도 많아 이름높지만 천연수림과 심산곡곡들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특효가 있는 진귀한 약초와 산나물, 산열매들 또한 많고많은 세상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에서 공해가 없고 수정같이 맑은 물 흐르는 금강산의 수림속에서 절로 자라는 고사리, 령지버섯, 구기자, 더덕, 산수유, 참취 등 산나물, 산열매들과 도동벌꿀, 산딸기쥬스, 오미자쥬스 등을 채취하여 100여종의 천연장수식물들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봉사해주고있는 데 그 효령이 대단하다.

《금강산의 천연자연이 주는 무공해제품!》

《조선에서만 맛볼수 있는 천혜의 특산물, 그 향취 또한 기가 막혀!》

《금강산의 정기가 담긴 왕별젓을 마시자마자 힘이 부쩍부쩍 솟는다.》

... 천연장수식물들은 국내외

산 좋고 물 맑은 조선의 명승지에서 채취하고 정성들여 말리워 가공하여 품질관리를 엄격히 한 산나물, 버섯, 산열매제품들은 하나같이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약효가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에서 생산한 말린두릅제품만 놓고 보아도 몸이 허약하거나 신경쇠약, 저혈압,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다. 말린더덕, 말린참나무버섯제품들도 기침약, 기가래약, 항암효과가 높다. 말린구기자제품은 간장, 신장을 튼튼히 하고 눈을 맑게 한다.

천연수림속의 구재떡은 나무와 바위틈에 벌집을 만들고 1년이상 저장한 꿀을 채취하여 만든 도동벌꿀제품은 그 효과성이 뛰어나 건강식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왕별젓 제품 역시 자연이 준 최고의 종합영양보물고로서 건강에 필요한 물질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리상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에서 생산된 유명한 《화원》상표를 단 천연장수식물들은 국내외

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들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 의 벗들과 해외동포들도 이곳 사업소에서 생산한 천연장수식물들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것을 더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온정각, 만폭동, 삼일포, 해금강 등 금강산의 명소들마다에서 관광객들은 이곳의 유명한 천연장수식물들을 요구대로 구입하고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를 포함한 평양시와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등에 판매지점들을 내오고 관광객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방편식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 부원은 말한다.

《비단우에 꽃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천하절명승을 탐승한 기쁨에 그곳에서 나는 천연장수식물들을 한가득 안고 돌아가는 만족감을 맛볼수 있도록 품질좋은 관광기념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봉사하겠다.》

본사기자



최근 각 시, 군들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비율을 갖춘 현대적인 미래원이 일떠서고있다.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 도의 시, 군들에서 미래원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개건하는 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여기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팔1동에 위치한 미래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진 만경대구역 미래원으로는 붉은벽라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로동과정에 수많은 민속놀이를 창조하며 락천적인고 정서적인 생활을 하여왔다. 그러한 민속놀이는 크게 경기놀이, 겨루기놀이, 가무놀이, 어린이놀이로 나누어볼수 있다.

◆경기놀이 경기놀이에서 대표적인 것은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줄다리기, 활쏘기, 말타기, 격구 등이었다.

이밖에도 손으로 상대방을 쳐넘기는 손치기(수박), 발길로 상대방의 다리를 차넘기는 섹데, 나쁜 벌레와 묵은 잔디를 태우는 화불싸움놀이, 돌을 던지는 돌팔매놀이 등이 있다.

◆겨루기놀이 주로 방 안에서 승부를 다투며 즐기는 겨루기놀이는 오락기구와 노는 형식에 따라 윷, 쌍륙과 같이 가락을 가지

믿음직한 미래

이를 멘 학생소년들로부터 청년대학생, 로동자, 사무원, 로인에 이르기까지 각계층 독자들로 볼된다. 어느날도 그렇지만 일요일같은 때에는 네 다 많은 독자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전자열람실, 다매체열람실, 종합강의실, 학생열람실, 주문봉사실, 열람률 등



고 하는 놀이, 장기, 바둑, 꼬니와 같이 말을 가지고 하는 놀이, 시래, 가루, 칠교놀이와 같이 폐목을 가지고 노는 놀이로 나눌수 있다.

◆가무놀이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는 가무놀이에는 농악놀이, 탈놀이, 꼭두각시놀이, 불꽃놀이, 등놀이, 화전놀이, 강강술래 등이 있었다. 가무놀이를 전파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사당매였다.

◆아동놀이 에로부터 전해오는 아동놀이에는 연피우기, 팽이치기, 썰매타기, 줄넘기, 진놀이, 바람개비놀이, 숨바꼭질, 풍기놀이, 실뜨기놀이, 제기차기놀이 등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독특한것들이 많다.

본사기자

여내는 음식이므로 반찬의 가치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마른반찬, 장절임, 찜갈리는 한상에 따로 놓아도 1첩으로 쳤으며 찜개, 찜은 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사기자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

으로 이루어진 만경대구역 미래원은 중앙, 도, 시, 군(구역)사이의 정연한 자료봉사체계가 확립되어있어 독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현대과학기술자들과의 여러 부분의 최신성과자료들을 찾아볼수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근로자들은 이곳 미래원의 종합강의실 컴퓨터 앞에 앉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이름있는 교수, 박사들에게서 원격강의를 받으며 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에 한

몫 단단히 할 쓸모있는 인재로 준비해가고있다.

전자열람실과 열람홀에서는 국가망의 인기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교류를 진행하여도 하고 의학상식, 컴퓨터상식을 비롯한 과학기술상식을 넓히며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는 독자들의 진지한 모습도 볼수 있다.

만경대구역 미래원에서는 독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자의 저작 및 화상인력봉사, 책소개, 정보자료목록검색과 같은 봉사도 잘하여 호평

사화 명화 《레성강도》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고려의 이름난 화공 리녕은 좌벽란정(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의 미라산기슭에 있었음)옆의 객관에서 금방 단잠에 들었다.

드르릉 푸- 후- 드르릉 푸-후-

봄내 여름내 이렇게 가을이 되도록 강가를 오르내리면서 한복의 그림에 개경의 일출이러는 레성강을 담아보겠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고려의 이름난 화공 리녕은 좌벽란정(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의 미라산기슭에 있었음)옆의 객관에서 금방 단잠에 들었다.

드르릉 푸- 후- 드르릉 푸-후-

봄내 여름내 이렇게 가을이 되도록 강가를 오르내리면서 한복의 그림에 개경의 일출이러는 레성강을 담아보겠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있었다.

고려의 이름난 화공 리녕은 좌벽란정(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의 미라산기슭에 있었음)옆의 객관에서 금방 단잠에 들었다.

드르릉 푸- 후- 드르릉 푸-후-

봄내 여름내 이렇게 가을이 되도록 강가를 오르내리면서 한복의 그림에 개경의 일출이러는 레성강을 담아보겠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리녕은 인차 꿈나라로 실려갔다.

리녕이 노를 짓는 쪽배는 사물치는 강물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어찌된 노릇인지 리녕이 험경 노를 짓고있다고 몸과 마음을 다했으니 무쇠인들 견디랴.

우리 나라의 6대명산에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 칠보산이 속한다.

오랜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동쪽에서 금강산, 북쪽에서 묘향산, 서쪽에서 구월산, 남쪽에서 지리산을 꼽아 4대명산으로 일러왔다.

사실 백두산을 웅당 첫차리에 꼽아야겠으나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이 4대명산의 어버이산으로 불려야지 어떻게 그 산들과 갖가지 이름을 나란히 할수 있겠는가 하여 4대명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부

모를 떠나 자식을 생각할수 없듯이 조종의 산을 떠나 명산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백두산을 떼어

결국 5대명산으로 되었다.

새로 꾸러진 칠보산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5대명산이 있는데 이제는 칠보산까지 포함시켜 웅당 6대명산으로 불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6대명산이라는 말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다.

조국의 산 하나, 강 하나

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고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